색다른 스위스 도시 여행법. 현지인들의 스위스 도시 사용법 관광지 중심의 명소 찾기 여행은 이젠 그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만이 아는 숨겨진 매력 찾아보세요 루체른은 산에서 찾아가도록 하세요 취리히에서는 아트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관광객들이 북적대는 명소 중심의 여행법보다는 좀 더 자연과 가깝고, 공간적인 여유가 느껴지는 여행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스위스 현지인들은 도시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 도시 안에 살면서, 도시의 매력을 속속들이 아는 현지인들은 관광객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활용한다.

스위스 정부관광청은 앞으로 현지인들의 눈으로 본 스위스를 지속적해서 소개해 나갈 예정인데, 이들이 선호하는 장소와 명소를 비롯해 숨겨진 공간을 살펴보게 된다. 전 세계를 여행하기 좋아하는 스위스 사람들이 꼽은 자기 동네의 매력에는 스위스 대한 그들의 사랑이 세심히 묻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스위스정부관광청 소개할 여러 가지 면모의 스위스 중, 이번에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도시 두곳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한다.

1. 루체른은 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빌헬름 텔(Wilhelm Tell) 트레일에 담긴 이야기

루체른 사람들은 루체른 도시만 봐서는 그 면모를 모두 체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일단, 자연의 품에 안겨 걸으며 그 지역의 냄새와 소리, 풍경을 모두 접해야 온전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롭게 단장한 빌헬름 텔 트레일은 장거리 하이킹 트레일로, 알트도르프(Altdorf)에서 브리엔처로트호른(Brienzer Rothorn)까지 이어진다. 볼거리와 기막힌 풍경이 가득한 구간이다. 좀 더 여유로운세 번째 구간이 루체른(Luzern)으로 이어진다. 이 구간은 특히 산책과 수영, 물가에서의 한잔을 즐기기좋다. 그리고 나면 수많은 호텔 중 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루체른은 도시의 흥미진진함과주변 산의 마법, 호수의 매력이 기막히게 조화를 이룬 곳이다. 울퉁불퉁한 풍경과 고운 모래가 있는 해변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가깍이에 모여있다.

루체른은 참으로 포토제닉한 도시다. 루체른 호숫가에 자리해 있으며, 리기(Rigi) 같은 산으로의 여정도 당일로 충분하다. 중앙 스위스의 도심지, 루체른은 매력으로 가득 찬 여행지다.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곳이 빌헬름 텔 트레일 위에 있다. 바로, 캔첼리(Känzeli) 전망대다. 여기에서 시간은 정지한 듯하다. 피요르드 같은 루체른 호수의 풍경과 그 너머로 솟아난 알프스 봉우리가 전율을 느끼게 해준다. 잊지 못할 풍경이다.

여기에 150 년이나 된 산악열차가 있다.

브룬넨(Brunnen)에서 우르미베르크(Urmiberg)를 잇는 케이블카를 탄 뒤, 꽤 도전적인 하이킹 코스를 지나 캔첼리 전망대를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리기 칼트바트(Rigi Kaltbad)가 멀지 않다. 비츠나우(Vitznau)와 리기 쿨름(Rigi Kulm)을 잇는 톱니바퀴 열차의 중간역이 리기 칼트바트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산악 열차로, 2021 년에 150 주년을 맞는다. 그래서 2021 년 내내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산들의 여왕이 손짓한다. 리기는 당일 여행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 중 하나다. 세 개의 호수 사이에 있는 웅장한 위치와 기차로 닿을 수 있는 쉬운 교통편, 절대적인 파노라마 덕분이다.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리기는 "산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빌헬름 텔 트레일의 세 번째 구간은 가파른 내리막과 화려한 절경이 인상적인데, 리기 칼트바트에서 계곡 아래를 향할 때 감탄이 나온다. 리기 톱니바퀴 열차 탑승 그 자체가 즐거운 체험이 되어주는데, 비츠나우에서 기차가 멈춘다.

이 그림 같은 마을은 루체른 호숫가에 바로 마주해 있다. 기차에서 내리면 맞은편 선착장에 유람선이 이미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루체른으로 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 중 하나가 바로, 이유람선일 테다. 기분 좋은 바람을 가르며 수정같이 맑은 물 위를 미끄러져 나가면서 자연의 신비를 한껏 펼쳐내는데, 오롯이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루체른 호수를 운항하는 유람선의 종류도참 다양한데, 현대적인 모터 크루저부터 역사적인 패들 증기선까지 골라 타는 재미도 쏠쏠하다.

프레드릭 쉴러의 "빌헬름 텔"의 서막에는 "호수가 너무 유혹적이라 빠져들려는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루체른을 향해 호수를 건너는 동안 보드라운 바람이 곁을 지킨다.

루체른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눈에 띄는 볼거리가 있다. 바로, 루체른 콩그레스 센터, 카카엘(KKL)인데, 건축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건물이다. 중앙으로는 루체른의 명물, 카펠교(Kappelbrücke)가 등장한다. 오른편으로는 호프키르헤(Hofkirche) 교회가 하늘 위로 두 개의 첨탑을 쏘아 올린다. 산에서 내려오는 이들을 반길 채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다. 루체른은 참 다채롭다. 사자상처럼 관광지로서의 볼거리도 가득한데, 특히 2021 년은 사자상이 200 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루체른은 여름에 더 매력적이다.

하이킹 후에는 산책로를 따라 걸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하나로 기분을 낼 수도 있다.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자면 이보다 더 좋은 여행지는 없지 싶다. 호숫가 산책로 끝자락에는 리도(Lido)라 불리는 수영장이 있다. 선탠을 즐길 수 있는 커다란 잔디밭과 풀장, 여기가 호숫가인가 싶을 만큼 보드라운 모래사장이 깜짝 놀랄만한 시간을 선사해준다. 하이킹화를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옥빛호숫물로 뛰어든다. 모래사장을 뒤로하고 서서히 헤엄쳐 나아가다보면 눈앞으로 알프스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루체른에서만 가능한 일상이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어가다 보면 리도 비치 하우스가 등장한다. 햇살 좋은 테라스에서 음료 한잔을 홀짝일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한 주방에서 선보이는 스낵도 훌륭하다. 그래서 리도 비치 하우스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테라스에 앉아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면 호수 건너편으로 필라투스(Pilatus)가 솟아나 있다. 루체른 시민들이 도시를 상징하는 산으로 여기는 필라투스는 빌헬름 텔 트레일 중 네 번째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다.

다음 여정을 이어가기 좋은 시간이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2. 취리히(Zurich)가 품은 예술품을 꼭 만나 보세요. 취리히 시립미술관(Kunsthaus Zürich) 주변으로 이어지는 아트 및 갤러리 투어

취리히 사람들은 아트 없는 취리히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취리히를 찾는다면, 꼭 함께 살펴보아야할 것이 이 도시가 품은 예술품이라고 강조한다.

사실, 최근 취리히에는 예술적인 요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쿤스트하우스라 불리는 취리히 시립미술관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덕분이다.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이끄는 확장 공사가 올가을,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미술관을 스위스 최대의 아트 뮤지엄으로 바꾸어 놓는 중이다. 그러고 나니 마치 자석처럼 미술관 주변으로 각종 문화 요소가 끌려 왔다. 다양한 갤러리와 창작 감각이 넘쳐나는 숍들이 생겨난 것이다.

취리히는 사실 모든 것을 갖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 여 개의 박물관과 100 개가 넘는 갤러리, 호수를 따라 난 셀 수 없이 많은 수영장, 각종 문화 시설 및 볼거리, 2,000 여 개의 레스토랑이 이 도시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취리히의 동네도 흥미롭다. 어떤 동네는 힙하고, 어떤 구역은 다문화적이다. 어떤 곳은 산업화 시대의 향취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어떤 동네는 역사적이다. 어떤 경우든, 여행자로서는 발견할 거리가 넘쳐나는 도시임에 틀림없다.

취리히는 다채로운 예술과 문화가 있어 더욱 생기 넘치는 도시다. 취리히 시립미술관 같이 세계적인 시설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갤러리뿐만 아니라, 젊고 혁신적인 갤러리와도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 그래서 무대 아래의 매혹적이고 생기발랄한 예술계의 분위기를 언제나 반영할 수 있다. 도시의 크기에 비해 엄청난 밀도와 다양성 덕분에 다른 유럽 대도시와 견주어도 뒤처질 것이 없다.

특히 눈길이 가는 곳은 하임플라츠(Heimplatz) 광장 주변인데, 취리히 시립미술관이 있는 곳과 그주변부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 니더도르프(Niederdorf)에서 100 여 년 전 세계 미술사가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휴고 발(Hugo Ball)과 한스 아르프(Hans Arp)가 작가들과 함께 캬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를 만든 덕분이다. 바로, 다다(Dada) 예술 운동이 태어난 곳으로 여겨지는 캬바레 볼테르는 취리히를 기반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지금까지도 취리히 시립미술관은 그카리스마를 잃지 않았다. 하임플라츠에서 출발하는 1 마일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별하다.

취리히 아트 위켄드의 디렉터, 샬롯 폰 슈토츠칭엔(Charlotte von Stotzingen)에게 이런 풍경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녀에게 취리히 예술 현장의 경향과 발전은 무척 익숙하다. 취리히 아트 위켄드의 디렉터로서, 스위스 최대의 도시에 있는 예술 현장을 위해 국제적인 플랫폼을 매년 설계하고 있다. 3 일동안 개인 및 공공 예술 기관을 비롯해 중요한 갤러리와 트렌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들이 모두함께 문을 연다. 취리히 아트 위켄드는 바젤(Art Basel) 1 주일 전에 열리는데, 취리히를 국제적인 아트현장의 핫스폿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다양한 아트 공간이 대중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이축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작가와의 만남, 아트 워크, 특별한 가이드 투어, 심포지엄, 패널 토론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더욱 빛을 발한다.

"취리히 아트 위켄드 동안 세계를 선도하는 시설, 갤러리,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 **3**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샬롯이 축제에 대해 설명한다. 취리히는 "참 다이나믹한 갤러리 시티"라고 말하는 그녀다.



과거에 산업지대였던 취리히 서부지역이 한동안 트렌디해지면서 예술 현장의 핫스폿이라 여겨졌지만, 점점 더 많은 갤러리가 취리히 시립미술관 근처로 옮겨 오기 원하는 요즘이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갤러리가 프레젠후버(Presenhuber)다. 2020 년 초에 미술관 근처에 오픈한 갤러리다. 근처에는 레비고비(Lévy Gorvy) 갤러리도 럼블러(Andreas Rumbler)와의 파트너쉽으로 취리히 브랜치를 오픈했다. 하우저 & 비르트(Hauser & Wirth)도 최근, 래미슈트라쎄(Rämistrasse) 두 개의 지점을 열었는데, 하나는 서점이고, 하나는 전시장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 구역의 터줏대감은 마이(Mai) 36 갤러리의 설립자, 빅토르 기슬러(Victor Gisler)다. 1996 년부터 래미슈트라쎄를 지키고 있는 마이 36 은 스위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갤러리로 꼽힌다. 빅토르 기슬러는 12 년 동안 아트 바젤 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8 년에 시작된 취리히 아트 위켄드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공간을 확장한 취리히 시립미술관을 살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1 년 가을에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중에 그 문을 활짝 열게 된다. 스위스 최대의 미술관으로 탄생할 순간이다.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특별 전시 외에도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으로 빼곡한 상설 전시도 유명하다. 피카소, 모네, 샤갈은 물론 피슐리 앤 바이스(Fischli/Weiss)와 실비 플뢰리(Sylvie Fleury) 같은 현대작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위스 최대의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라 유명하다.

미술관 밖에도 볼거리는 넘쳐난다. 1949 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로댕의 지옥문(Gates of Hell)은 미술관 입구의 상설 전시물이다. 스위스 멀티미디어 작가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의 조명 및 비디오 설치는 저녁마다 주변 건물과 표면에 색채감이 만연한 점을 쏘아댄다. 이 짓궂은 시간이 지나 갤러리들이 문을 닫고 나면, 미술관 옆 또 다른 문화 시설이 잠에서 깨어난다. 바로 샤우슈필하우스(Schauspielhaus)다. 길만 건너면 되는 극장이다. 하임플라츠에 있는 독어권 최대의 극장으로, 1901 년에 문을 연 뒤, 스위스 극장 역사를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 샤우슈필하우스의 모든 공연은 영어 자막이 제공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00 년부터는 여기에서 3km 떨어진 취리히 서부에 자리한 쉬프바우(Schiffbau)가 함께 취리히의 공연 무대를 더욱 활기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예술과 문화를 조금 더 가까이서 체험한 후에야 취리히를 제대로 여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때, 취리히를 더 매력적으로 추억할 수 있을 테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